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 KT의 우리말 더빙서비스 도입을 환영한다!

테마기획

7월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2019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변호사 김동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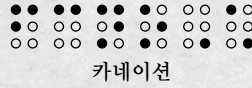
포커스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골볼, 충청남도예 골볼 실업팀이 생겼습니다!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 카네이션
시선집중	04	● [성명서] KT의 우리말 더빙서비스 도입을 환영한다!
테마기획	06	● 7월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08	● 2019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변호사 김동현 씨
포커스	10	●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골볼, 충청남도애 골볼 실업팀이 생겼습니다!
함께 사는 이야기	12	● 어느 소녀의 슬픔 이진규(시각1급_서울특별시 관악구)
월드 리포트	13	● 일본 시각장애인, 무정박 태평양 단독 횡단에 성공! ● 레고그룹, 시각장애 아동 위한 레고 점자 브릭 공개해
뉴스앨범	14	●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 '가치봄'으로 함께 영화봐요! ● 한국미즈노 주식회사, 한시련에 2600만원 상당의 운동화 기증! ●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 한시련, 장애인의 날 기념 안마시연 및 점자이름찾기 행사 펼쳐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5월이 되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부모님,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데요.

카네이션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읽기형 ① ④ ⑤ ⑥
② ③ ⑦

점 자 일 램 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육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대괄호[]						
영 어	영어사자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ㅌ, ㅍ, 다음에 약자 영 ㄹ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kt 우리말 더빙서비스 도입을 환영한다!

KT는 한국성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의 흥행영화를 대상으로 우리말 더빙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 TV 영화 채널 등 다수의 채널에서도 사라져간 우리말 더빙을 안방극장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문화향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시각장애인에게는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외화 보급사들은 경비절감이라는 이유로 우리말 더빙을 자막으로만 제공하여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문화향유를 무참하게 짓밟아 왔다. 이번 KT의 결단은 문화향유의 사각지대에 빠져 문화빈민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 발달장애인,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해하기 힘든 신종어와 비속어의 난립으로 위상이 위태로워진 우리말의 제자리 찾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사라져간 우리말 더빙을 되살려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고자 그동안 지상파들과 영화전문채널 등에서 외화에 우리말 더빙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2018년에는 지상파가 우리말 더빙을 재계하도록 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이동풍으로 일관해 왔었다. 이번 KT와 한국성우협회의 업무협약이 모든 방송사와 영화채널, 더 나아가 상영관에까지 우리말 더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우리 연합회는 이번 KT의 우리말 더빙서비스의 도입을 50만 시각장애인과 함께 환영하며, 진정한 문화향유권 실현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화면해설서비스 제공이다. 화면해설서비스는 시각적으로 화면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면 장면을 설명해주는 서비스이다. 즉, 영화 등을 시각장애인이 100%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화면해설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인 것이다. 방송법에서

도 일정 비율 이상의 콘텐츠에 대하여 화면해설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둘째, 셋톱박스에 음성안내 제공이다. 현행 보급된 셋톱박스는 채널, 프로그램명, 편성표 등에 대하여 음성안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은 TV시청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내가 원하는 채널로 변경되었는지,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원하는 프로그램이 언제 방송되는지 등등의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셋째,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안방에서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등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시각장애인은 버튼명을 이미지로만 제공해도 그 버튼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접근성 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 시각장애인도 이동하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문화향유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끝으로 대다수 시각장애인의 영화 감상 프로그램인 우리말로 더빙된 외화 프로그램을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 영화 채널 등 다수의 채널에서 방영 재개를 간절히 바라며,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화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19년 4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7월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1~6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제가 7월에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장애등급제란 1988년 도입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 1급부터 경증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지요.

그러나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듯 코앞으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서는 작년 5월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시각장애인은 서비스 급여량이 평균 9.12시간 감소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고, 수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공개된 수정안은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로 수정된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는 그대로 두고 배점만 수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평가지표는 장애유형별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음식물 넘기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배변, 배뇨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항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지표들 시각장애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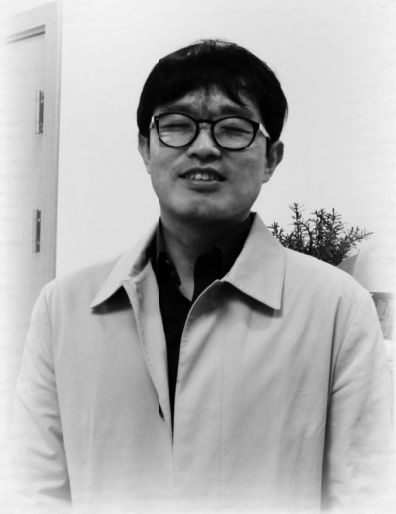
현재 평가지표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조사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조사 도구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래 취지대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의 평가지표를 시각장애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현실적인 지원 및 맞춤형 복지를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만큼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든 기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 변호사 김동현 씨

서울시 제39회 장애인의 날, 제15회 복지상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대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차별·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 김동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처음 변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셨나
요?

A. 20대 때 군대에 가게 되면서 훈련을 받으며 전역한 후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
습니다. 그 때 과학기술정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IT관련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고, 직접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런 저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장애인 학대와 차별 피해
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로스쿨에 입학해 공부를 하던 도중, 2012년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들었
습니다. 그때의 심정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A. 그 때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갑자기 겪게 된 일이라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고요. 아는 스님께서 기도를 해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절에서 3000배를 하기도 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기도를 해서
시각장애가 없어진건 아니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
서는 나에게 다가온 시각장애라는 상황에 최대한 빨리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암기하는 학습법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가능한 얇은 책을 여러 차례 들으며
중요 내용을 메모장에 타이핑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양이라도 정확한 정답을 쓸 수 있게끔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시험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Q.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해설서를 집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나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요?

A. 제가 해설서의 전체를 집필을 하거나 기획을 한 것은 아니고, 해설서는 2014년 사단법인 장애
인 법연구회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많은 변호사들이 파트를 나누어 공동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된 것이고요. 공동 저자가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서울시 복지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수상 소감이 궁금합니다.

A. 사실 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기도 했고요. 상 자체가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제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일인데 제가 대표로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내년에는 판사 시험을 볼 예정인데요. 그 때까지는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접근성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데, 아직도 시각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무인 주문을 가능케 하는 키오스크나 IoT 가전제품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손쉽고 편리한 기능이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여전히 접근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보험 가입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와 관련 있는 부분만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입 자체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골볼, 충청남도에 골볼 실업팀이 생겼습니다!

소리나는 공을 상대 팀 골대에 넣어 득점하는 경기,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 골볼인데요.
충청남도청에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 실업팀이 생겼습니다.

지난 1월, 전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 실업팀이 충청남도에서 탄생했습니다.

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상대 팀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현재 장애인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골볼 실업팀 창단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돈 아산시지회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공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김영돈 지회장과 양승조 도지사는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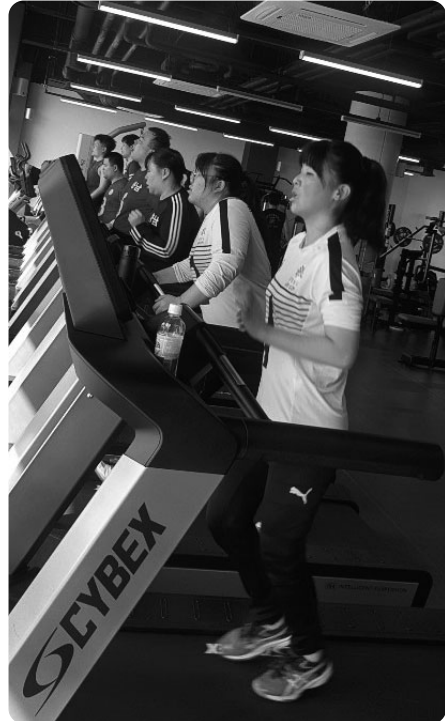
년 부터 골볼 실업팀을 창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올 1월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청에 소속된 골볼 실업팀은 김진 감독과 남자 선수 4명, 여자 선수 4명 등 2개 팀 9명인데요. 감독과 선수 전원은 지난 해 12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되었습니다.

특히 김진 감독은 골볼 남자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했으며, 주장인 홍성욱 선수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0년 광주우 장 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해 당시 2위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골볼팀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7명의 선수 역시 대부분 국가대표 출신으로 아시아경기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어 국내의 골볼 활성화 및 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창단사를 통해 “민선 7기 충청남도의 목표인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골볼팀 창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골볼팀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충청남도청 골볼 실업팀이 펼쳐갈 승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느 소녀의 슬픔

이진규(시각급_서울특별시 관악구)

우리 엄마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다. 밤마다 나를 혼자 두고 돈을 벌러 어디론지 나간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 엄마를 안마사라 부른다. 난 왜 그런 엄마가 우리 엄마야 하는지 괜히 창피하다. 난 그런 엄마가 싫고 집이 싫어 밖으로만 나뉜다. 엄마는 이런 날 보고 사춘기라서 그런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던 어느 날, 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한쪽 눈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잃어버린 한쪽 눈의 시력은 끝내 되찾을 수가 없었다. 의사는 다른 사람의 각막을 이식받아야 된다고 했다. 몇 달 지난 어느 날, 의사가 내 한쪽 시력을 되찾아줄 각막을 찾았다고 했다. 시력은 없었지만 멀쩡해 보이던 엄마의 각막을 내게 준다는 것이다. 수술 결과는 아주 좋았다. 대신 엄마의 한쪽 눈이 좀 이상하게 생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그런 일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 엄마로서 그냥 당연한 희생으로만 여겼다. 퇴원하고 한동안은 제법 안전한 아이로 지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나는 또 공부도 팽개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녔다. 엄마는 그런 나를 울면서 말렸지만 난 오히려 더 따지고 들었다. "앞도 못 보는 엄마가 날 낳은 건 엄마의 실수였어. 다른 애들보다 내가 엄마 때문에 당하고 사는 피해가 얼마인지 알아?"

그렇게 지내던 하루는 어딜 다녀온 엄마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 어디서 그렇게 울었는지 얼굴은 퉁퉁 부어가지고 와서 안 울려고,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애쓰는 엄마가 다른 때와 많이 달라 보였다. 지치고 해쓷은 얼굴로 다가온 엄마가 말했다.

"이쁜 우리 딸,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엄마가 좀 먼 여행을 떠나야 될 텐데 혼자 괜찮을까? 이제 많이 컸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여행이라고 모르고 사는 엄마였기에 나는 그런 말이 믿기지 않고 늘 하는 꾸밈으로만 들렸다. 계속 울먹이고 있는 엄마를 뒤로 하고 난 또 집을 나가 버렸다. 친구들과 한동안 밖에서 배회하다 몇 일만에 돌아온 집은 쓸렁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집은 더 이상 나를 반기는 포근한 동지가 아니었다. "여행 갔나 보네. 제 딸 혼자 두고 여행가는 엄마가 무슨 엄마야. 흥, 혼자 잘 돌아보라지."

그렇게 쫓알대기는 했지만 느낌이 영 안 좋았다. 지난번 별난 엄마의 행동이 머리에 스쳤기에, 난 곧바로 엄마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위에는 하얀 편지봉투와 통장과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A4 용지에 빼곡히 적혀 있는 엄마의 편지는 이랬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엄마는 갈 길이 급하다만, 우리 딸, 예원은 언제쯤 돌아와 이 편지를 읽을까. 며칠 안 남은 우리 예원의 생일 촛불은 같이 켜고 싶었는데, 생일노래도 불러주고 삼페인도 터뜨려주고 싶었는데, 하늘은 엄마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베풀지 않는구나.

사실 엄마는 몸쓸 병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던단다.

주어진 처지에서 온몸 던져 애써 왔지만 번듯한 무엇 하나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 엄마를 용서해라. 혼자 남은 우리 딸한테 남겨줄 게 너무 없어서 부끄럽지만 죽기 전에 엄마의 몸에 남은 몇 가지 장기를 팔아서 너에게 작으나마 보태기로 결심했단다. 입금될 돈이래야 몇 푼 안 되지만, 얼마간이나마 너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 주기 바랄 뿐이다.

우리 예원이 그동안 못 보는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엄마는 더 속상했어. 다른 엄마들보다 불편하고 미력한 엄마였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독이고 눈물 닦아줄 엄마 손길 더 필요한 우리 예원인데, 저 하늘은 이 엄마마저 두렵고 알 수 없는 길을 재촉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 눈물 나도 바보같이 울면 안 돼. 투정부릴 엄마 없어도 거울 보며 웃어야 해.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너의 오후는 얼마나 쓸쓸할까? 그럴 땐 어려서 엄마와 같이 걷던 오솔길을 걸어보렴. 그 때 그 꽃들이 너를 반겨 활짝 웃어줄 거야. 그러다 길가에 서서 가만히 엄마를 불러봐. 엄마 음성 안 들려도 불에 스치는 바람으로 응답할 게.

엄마 없이 잠들 저녁은 또 얼마나 무섭겠니? 그럴 땐 그럴 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시선 머무는 그 곳에 예쁜 별로 반짝여 줄게.

누가 뭐래도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말고 꼭꼭 세상을 이기는 우리 딸이 되어라.

◆ 일본 시각장애인,무정박 태평양 단독 횡단에 성공! ◆



일본의 시각장애인 이와모토 미츠히로(52)씨가 요트로 무정박 태평양 단독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시각장애인요트협회는 무정박으로 태평양을 단독 횡단한 시각장애인은 이와모토씨가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12m길이의 요트를 가지고 지난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떠난 지 두 달 만에 1만 4000km의 횡단 항해를 지난 4월 20

일 후쿠시마현 이와키 항에 도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모토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고래와 충돌하는 바람에 보트에 구멍이 나 실패한 뒤 일본 자위대에 구조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교토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꿈이 이뤄졌다”고 감격한 뒤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여섯 살에 시력을 잃은 그는 비장애인 더그 스미스(미국)가 말로 일러주는 요트를 몰았고, 풍향이나 잠재적 위험 가능성 등을 조언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번 항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레고그룹, 시각장애 아동 위한 레고 점자 브릭 공개해 ◆



레고그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지속가능 브랜드 컨퍼런스’ 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익힐 수 있도록 개발한 레고 점자 브릭을 선보였습니다.

레고 점자 브릭은 실제 점자와 동일한 배열의 6개의 스톨드(원형돌기)를 갖춰 알파벳과 숫자 등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는데요. 비장애인도 레고 점자 브릭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브릭 하단에 점자가

의미하는 알파벳이나 숫자, 혹은 기호를 새겼습니다.

레고그룹은 오는 2020년 레고 점자 브릭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덴마크어·노르웨이어·영어·포르투갈어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 제품은 올해 3·4분기 중 시제품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제품은 알파벳과 숫자·수학기호·간단한 게임 기능 등이 포함된 약 250가지 브릭으로 구성되며 추후 테스트 국가 내 파트너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한글자막 화면해설 서비스 '가치봄'으로 함께 영화봐요!



지난 4월19일, 서울 여의도 CGV에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전국상영관협회, 작은영화관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관람 서비스 '가치봄' 브랜드 런칭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치봄'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영화 상영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서비스의 브랜드화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정확한 소통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우 박성웅님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 가치봄의 홍보영상을 공개하며, 가치봄 서비스로 준비한 영화 <로망>을 상영했는데요, 앞으로 '가치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한국미즈노 주식회사, 한시련에 2600만원 상당의 운동화 기증!



지난 4월 2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는 한국미즈노 주식회사의 운동화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미즈노는 일본의 스포츠용품 브랜드로 창업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증한 운동화는 모두 2,600만 원 가량으로 국내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활용해 달라는 목적으로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운동화 후원을 계획한 미즈노에 감사를 표한다”며 “운동화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 기능전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욕구충족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는데요.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와 같은 토론에 대해 “명칭 개정과 기능개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시련, 장애인의 날 기념 안마시연 및 점자이름찾기 행사 펼쳐



지난 4월 18일, 제 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날행사추진 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봄날의 멋진 동행”을 개최했습니다. ‘봄날의 멋진 동행 축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되었고 참여단체들은 장애인식개선 부스를 마련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함께 참여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홍보부스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시연과 스티커에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새길 수 있는 점자이름찾기 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요.

홍보 부스가 운영되는 동안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규모와 판매상품(객실정보 및 환경과 가격정보),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체크인 시 서류작성(대독 및 대필)을 도와 주시고, 지정객실의 안내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내부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이용 가능여부를 충분히 서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정보를 말로 전달해 주시고, 시각장애인이 원할 때 동행하여 주세요.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100-030-501953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